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今期議會의 特質

第六十九特別議會는 五月一日로써 召集되여 貴衆兩院이 다 成立되엿다. 非常時局에 一層그重大性을加한 二·二六事件의 뒤를 바따 組閣된 廣田內閣의 最初의 試煉되는 今期議會는 政府이다 할것, 政府支持의傾向을 띄고잇는바를 政府提出의 重要法案은 다 無難히 通過될것이 豫想되나 政黨의無力化 議會政治機能의 萎塞은 일즉이엇든, 畸形的現象을 나타낼것이 따라서 豫想된다. 그리고 廣田內閣이 大衆生活의 向上乃至安定을 한 政治經濟機構의 革正機構를 提唱한 具體案이 아즉 成立되지못한 오늘 엇더케 從來의 모든 機構와 새로히 提起되려는 氣勢를 調和하야 過渡的인 役割을 할가하는 點은 主로 議會에 잇서 當然히 問題가 되고 二·二六事件의 經緯其他에 對한 質問答辯을 中心으로 하야 展開될것이 豫想되므로 今期議會의 特質은 政黨과 政府가 政治經濟機構革正의 樣運을 어떠케 認識하고잇는가 하는 點을 어떠케 反映하는데잇서 注目할만하다 할것이다.

獨墺合併說

一

獨逸의 再軍備實施와 라인 再武裝이 既定事實로 化하야 歐洲政局이 바야흐로 一大陣痛期에 잇게된 이지음 히틀러總統은 나치綱領 第一條에 揭示한 『獨墺人을 糾合하야 大獨逸國을 建設함』 第一着手로 獨墺合倂을 實現하야 多年의 國民的宿望을 達成할 意向이라는 報道가 盛傳되자 나치스式 猪突外交에 놀난 歐洲의 視線은 라인란드로부터 中歐로 移轉되게되엿다 勿論 베르사이유條約의 軍事條項과 로카르노條約을 一方的으로 破棄하고 再軍備와 라인進駐를 實現하기에 成功한 獨逸으로서는 現在의 國內實情으로 보거나 또는 國民의 要求로보아 獨墺合倂을 企圖하는것은 오히려 必然的 順序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問題는 單純히 獨逸의 一方的意思에 依해서만 解決될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奧太利의 獨立과 이를 中心으로한 列强의 利害와 重大關係를 갓고잇슴으로 그實現에는 巨大한 障礙이 豫想된다

二

獨逸의 帝國主義的發展은 베르사이유條約에서 嚴重히 封鎖되엿스나 今日과가티 高度의 資本主義的發展을 遂한 獨逸로서 領土的發展을 意圖하는것은 當然한 일일것이나 그러라고해서 로카르노條約破棄로 英佛白의 興奮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이때에 西進을 斷念하야 오이펜이나 말메디 로렌을 占領한다고하면 英國의 惡感을 사게될것이며 東으로 進하야 波蘭回廊이나 메멜의 返還을 要求하게되면 波蘭과 발틱諸國을 사비에트聯邦에 加勢케할 憂慮가잇다 여기서 獨逸은 人種, 言語, 文化가 가튼 墺太利와 合倂을 實現하야 大戰에서 喪失한 領土와 人口를 補充하는同時에 將來 中歐에의 進出根據를 만들어고하는 意圖를 갓게된것이 아닌가 疑問이다

三

墺太利는 일즉 작센이나 바바리아地方으로 獨逸의 一部分이엿든것과 그國民의大部分(現在九十五%)가 獨逸人이것과 大戰後 베르사이유條約에依하야 經濟的으로 獨立을 維持하기困難하기까지 國土를 削減케되여 墺國民의 一部가 自發的으로 獨墺合倂을 期圖하고 잇다는 等等의 諸事實에 비추어본다면 히틀러總統의 言明에는 만흔 實現性을 伴하게된다 그러나 一九三四年一月 維也納을 中心으로 墺太利全土에 勃發하엿든 나치스 派陰謀事件의 뒤를니여 伊太利援助下에 墺太利의獨立保障과 함 [illegible]

[illegible] 今日에잇서 이問題는 [illegible] 하고잇는 [illegible] 自國內에 重大變化가 이러나지안는限 [illegible] 獨墺合倂이 實現되다고하면 一方 伊太利의中歐進出이 [illegible] 危險하게되고 佛國과 小協商國과의關係가 [illegible] 될 危險性이잇슴으로 獨墺合倂의 前途에는 伊太利와 佛國의利害로서 [illegible] 危險性을 孕胎하고잇다

에政府、無抵抗으로 首都撤收를決意

敗殘兵殺到、全市民避難準備

伊前哨近郊에到達

【아디스아베바三十日發同盟】에디오피아政府當局은 오래동안 敗戰을 否定하고 最後까지 伊太利軍에 抵抗하겟다는 言明을 繼續해왓스나 前線으로부터 敗戰情報가 續續 到達되고 伊太利自動車挺身隊는 首都를떠난 四十餘키로의 地點에 到達하엿다고 傳하는結果 戰況의 不況을 깨닷고 平和裡에 首都를 撤收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다 市長은警察當局과 協力하야 治安維持에 熱中하고잇는데 英米佛各國公使館의 援助를 要請하엿다고 解說되다 에디오피아 政府當局은 近近 全市民에게 對하야 首都를 撤去하고 西方地域에 避難하도록 希望할方針인모양인데 壯丁出動의 뒤를바라 首都警備에 當하고잇는 老人과 少年軍은 一切를 斷念하고 續續首都를 撤收中이다 一方 前線으로부터도라오는 敗殘兵은 續續 首都로 殺到하고잇는中이며 瑞典將校指揮下에 前線에 出動한 에디오피아 狙擊兵六百도 完全히 敗退하야 幾存한 三百三十名은 飢餓와 重傷에 困憊된모양으로 三十日 겨우 首都에 到着하엿다 北部戰線에 出動한 國民赤十字隊도 伊太利軍前進隊의 肉迫에 憔悴히 首都에 歸還하엿는데 首都는 벌서 敗殘兵과 居留外國人만이되어 全혀 死都化하게되엿다

【羅馬一日發同盟】伊太利遠征軍은 南北兩戰線으로부터 에디오피아全版圖를 席捲하고 刻刻首都아디스아베바에 肉迫하고잇는데 首都攻略도 벌서 時間問題라고 解釋되게되엿다 伊太利政府當局은 北軍先鋒部隊가 이미首都에 入城하엿다는 報道는 否定하고잇스나 前哨侯騎는 이미아디스아베바市近郊에 到達하야 無人帝國首都는 着着距離에 肉迫하고잇다고 傳한다 南方戰線의 沙地 사사바에市 陷落報道에 羅馬全市民은 三十日夜는 狂喜亂舞하고잇는데 드디어 首都가陷落되는同時에 무솔리니首相은 全國總動員으로 아주나-라를 斷行하야 遠征軍工作의 完了를 記念하기로 決定하엿다

伊軍先鋒部隊에 國首都入城說

英紙通信員의報道

【倫敦一日發電通】에스췌지·텔레그래프紙아디스아베바通信員의 報道에 依하면 南北兩戰線으로부터 아디스아베바에 肉迫하고잇던 伊太利軍의 先鋒混成部隊는 一日朝 에디오피아首都아디스아베바에 入城하야 東阿遠征의 目的을 完結하엿다고한다

羅馬當局에는 아직入電이업다

【羅馬一日發電通】伊太利軍의아디스아베바占領說에關해서는 現在로는 當地에는 何等 入電이 업다 또 伊太利政府宣傳省도아직은 에디오피아首都陷落의 報에 接치안헛다고 하고잇다

喜多少將張群氏會見

【南京三十日發電通】駐中大使館附武官 喜多少將은 三十日午後二時 外交部에 張群部長을 訪[illegible]

『日本政府는、東洋에 無敵의地位獲得』

米下院豫算分科委員會秘密會席上에서의 海軍首腦部報告內容

【華盛頓三十日發同盟】米國海軍의 首腦 建艦修理局長 란드少將、軍令部次長다우식少將、航空局長킹少將等은 過般 下院豫算分科委員會秘密會席上에서 米國政府의 建艦工作에 關하야 重要見解를 表明하엿는데 秘密會의 報告書는 三十日午後 下院事務局에서 發表되엿다 右報告書에 依하면 란드少將은 海軍當局은 一億六千八百萬弗의 豫算으로서 新艦八十六隻의 建造를 急行中이라는것을 明言하엿다 八十六隻의 內譯은 如左하다

航空母艦	三隻
甲級巡洋艦	三隻
乙級巡洋艦	九隻
甲級驅逐艦	十二隻
乙級驅逐艦	四十隻
潛水艦	十六隻
砲艦	二隻

이다 다음 軍令部次長 다우식少將은 日本政府의 建艦工作에 言及하야가로되 日本政府는 華府條約廢棄를斷行하는同時에 着着 海軍力의 充實에 努力하야 彪大한 建艦計劃을 立案하엿다 特히空軍擴大, 主力艦의 近代化에主力을 傾注하고잇스므로 一九三六年末까지에 主力艦及乙級巡洋艦의 改裝은 거의完了될것이다 如斯히 日本海軍力이 增大되어 比島聯邦의 獨立을 契機로 米國府政가 同方面으로부터 撤收하게 되엿고 또 英國 政府도 歐洲의 情勢重大化로 領海外를 도라볼 餘暇가 업서 日本政府는 事實上 東洋에 無敵의 地位를 獲得하게 되엿다 特히東印度와 如한것은 强力한 日本軍을압두고 重大脅威를 밧게되어 和蘭政府도 非常히不安을느끼고잇다

時事漫話 ― 觀客은 期待하나 政府는 度量이 잇소?

外蒙을圍繞한 極東新情勢

⑩ 金翰容

以上과가티 蘇聯의 極東政策은 蘇聯에對하야 軍事上으로나 經濟上으로나 만흔 重要性을 가진 外蒙과 蘇聯의 關係强化에 依한 新事態는 極東情勢에 如何한 影響과 變化를 招來하는가 이것이 最後로 考慮할 問題이다. 消息通間의 觀測으로는 今回의 蘇蒙協定의 公表는 佛蘇協定의 延長이라고 보아 佛蘇協定의 批准으로 歐羅巴方面의 安全保障을 獲得한 蘇聯이 그餘勢를 빌어 極東에의 積極的進出을 企圖하는 것이라고 論하고잇는데, 勿論 그도 一理 잇다하는點이 업는바는 아니나 蘇聯側으로서는 이것은 日本勢力의 北中進展에 依한 結果라고 解釋하고 잇는모양이다.

그러면 이러한 解釋은 如何한 根據에서 抽出된 것인가? 日本側으로서 본다면 外蒙이 完全히 蘇聯勢力下에잇고 또 新疆의 實權을 蘇聯이 掌握하고잇슬뿐아니라, 中國紅軍은 蘇聯의 積極的援助에 依한 活動이니 콤민테른의 工作이 北中에까지 外蒙을通한 所謂 共軍의國際路를 開通하고 紅軍과 合作하야 積極的으로 中國의 赤化를 實策한다면 中國이 赤化의 危機에 瀕하게 되어, 滿洲日本으로서는 國內治安과 東亞平和上 이를 重大視하지 안흘수업슬뿐아니라, 그結果는 日本과 共同防衛를 盟約한 滿洲國이 北으로는 直接 蘇聯領土와 接하고 西로는 外蒙, 南으로는 赤化된 北中을 接하게되어 事實上 滿洲國은 三面으로 紅色軍에게 包圍되는 形勢가 될것이니 日滿兩國으로서는 自衛上, 特히 滿洲國의 安全과 國內의 治安上 到底히 이事態를 默視할수업다고 보고잇는反面에 蘇聯側으로서는 滿洲國이 日本과 不可分의 關係에잇고, 北中一帶에 日本勢力이 扶植되어 이것이 山西에 及하게된다면, 蘇聯과 密接한 關係에잇는 外蒙은 事實上 日本勢力에 包圍되는 形勢가 되다고 觀測하야, 自國의 安全上 又 外蒙과의 提携强化를 企圖하야 그勢力圈內에두고 外蒙의 安全을 圖해서는 어떤 犧牲이라도 不惜한다는 態度를 가지고 잇는것이다.

◇

이러한 相反되는 見解下에 日本의 北中工作이 奏效되어 冀察政權이 成立되고 日本과의 防共協定締結이 豫想되며, 一方으로 滿蒙國境에 不絶하는 國境紛爭의 連發惡化와함께 蘇聯은 드되여 意를 決하야 蘇蒙協定을 公表하게된것일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去年六月로부터 十一月 까지, 繼續되엇스나 終乃決裂된 滿洲里會議의 直後이든 아니라, 때마츰 中國紅軍은 獨地를 버리고 山西로 進入하게 되어 山西가 危機에 瀕하는同時에 그 共軍의 將來의 進路目標가 어데가하는것이 가장 注目되든때이며 또 紅軍의 山西進入에 對한 中央態度가 模糊할뿐아니라 蘇蒙協定에對한 中國의 抗議도 徹底的인것이며 그後 何等 積極的抵抗을 보이지 안코 默過하는 態度를 取하고 잇스므로 蘇聯과 中國, 蘇聯과 中國紅軍, 中國紅軍과 國府間에는 어떠한 諒解나 또는 默契乃至 密約이 잇서서 이三者間의 提携合作에 依하야 積極的으로 反滿抗日을 企圖하고잇는 것이라고 消息通側에서는 觀測하게되엇다. 吾人으로서는 國共合作 再現說이 事實인지 또中國紅軍의活動이 蘇聯의 背後操縱에 依함인지 그事實與否는 斷定키는 困難하나 中國紅軍의 近來의 擧로간에는 反滿抗日的色彩가 濃厚하고 또 그眞意는 알수업스되 紅軍의 山西進入이 北中, 或은 內蒙을 窺覦하는것이라고보고 또는 日中外交關係의 調整은 至極困難하고 國府首腦者의 對日態度가 明確을 缺한바잇기 때문에 이諸理由로해서 이러한 모든情勢를 日本側으로서는 三者合作에 依한 滿洲國의 包圍工作이라고 보지안흘수 업게되엇다. 이것이事實이라면 滿洲國은 馬蹄形으로 完全히 包圍를 밧는 形態가된다는것이다.

◇

이러케 觀察해온다면 極東에 잇서서의 外蒙의 重要性은 高價로서 評價되고나와, 實際, 冀東政府의 合倂과 日本과의 防共協定締結이 傳하는今日 北中赤化工作은 滿洲國의 包圍工作 이는 西에 侵入한 中國紅軍의 河北乃至 內蒙方面에의 進擊은 完全히 阻止되게될모양이니 外蒙軍의 理想은 放棄하지안흘수업게되엇고 假令 이런에도 不拘하고 共軍이 進路를 이方向으로 取한다면 防共協定에依한 日本軍의 行動으로 進入은 阻止될것이니 一紛糾는 未免한다하더라도 北中의 通過는 거의 可能性이 업슬것이다. 그러므로 滿洲國의 馬蹄形的包圍는 一角이 崩壞되게되엇스니 이제 情勢는 再轉되엇다. 그러나 滿蒙國境紛爭의 調整問題와 山西共軍의 動向과 國民政府의 對日態度如何로는 아직도 多端한 問題가 多角的으로 展開될 可能性이 多分이잇고 特히 蘇蒙協定에對한 中國의 默認的態度와 日滿兩國의 積極的拒否는 滿蒙兩國交의 事實上 閉鎖狀態와 아울러 極東에 將來에 相當 妙한 空氣를 釀成하야 時時로 紛爭을 孕胎하고잇서서 時局 推移되는 日, 滿, 蘇, 中 各國間의 關係와 이를 關聯한 多邊的인 諸問題는 世界의 注目을 끄을고도 남음이 잇다 할 것이다. (完)

東洋平和를爲해 蘇聯과의 提携企圖

但、萬一에備코저在滿兵力은充實

三相會議서意見一致

【東京電話電通】外交國防問題에 關한 第二回三相會議는 一日定例閣議散會後 午後三時半부터首相官邸에서 有田外相、寺內陸相、永野海相參集下에 開催하고 日蘇間의 交涉經過에 關하야 去二十七日의 유레네프大使와의會見에서 蘇滿國境紛爭處理、國境查定의 兩委員會는 設置하기로 되엇다는 旨를 報告하고 蘇聯을 求하엿다 다음 蘇滿相互撤兵條約問題、蘇聯의 提議한 東部國境으로부터 蘇軍의 撤退、滿洲國境地方의 兵備及海軍力縮少等 折衝을 開始하자는 日本要求에 回答를 表하얏스므로 不日 設置되는 兩委員會의 構成、權限、等에 關하야 專門委員會의意見을 徵하고 今後의 對策에 關하야 外務省으로부터 合各 報告하고 近近 協議하기로 되엇다는데 對蘇政策의 根本으로 日滿蘇의 親善關係確立은 東亞의 平和維持와 國民的生存의 意義發展에 對하야 緊急한것이므로 蘇聯과도 極力提携할 必要가잇다 그러나 從來 蘇聯의 東部國境方面에서의 蘇聯이 取해온政策은 日本方針과 合致되지안는바 잇슴으로 外交工作으로서 極力蘇聯側의 反省을 求하는同時에 萬一에 備할 在滿兵의 充實은 緊急이라는데 三相間의 意見이 一致되여 各 各 事務局에서 具體的 問題의 研究를 하기로 擴張이 되고 그리고 三相會議는 特別議會開會中에는 緊切問題가 發生치안는限 原則으로 集會치안키로되엇다

怪文書取締法案 議會提出키로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一日의 閣議에서 今期議會에 不穩文書等取締에 關한 法律案을 提出하기로 正式決定하엿는데 이는 所謂怪文書取締를 爲한 法律案으로 그理由로삼는바는 現下의 社會情勢에 鑑하야 治安維持를 期하기爲하야 不穩文書等의 取締를 目的한것으로 法律案의內容은 人心을 惑亂하고 軍秩을 紊亂케하고 又는 財界를 攪亂할目的으로서 治安을 妨害하는 文書、圖畵等을 出版하야 發賣頒布하는者는 嚴重處罰한다는것이다

議會提出六法案

【東京電話電通】政府는 一日의 閣議에서 左의 法律案六件의 議會提出을 決定하엿다

一、職業紹介法中改正法律案
一、不穩文書等取締法案
一、製鐵獎勵法中改正法律案
一、對中文化事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一、昭和七年法律第一號(滿洲事件에 關한 經費支辨을 爲하야 公債發行에 關한 法律)中改正法案
一、昭和九年法律第九號(滿洲事件에 一時賜金으로 交付할公債發行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滿獨通商協定 正式調印終了

駐日滿洲國大使館에서發表

【東京電話電通】滿洲國政府는 貿易擴張과 進出의 可能性을 打診할 目的으로 昨年 十月三十日 東洋經濟視察團으로서 首席代表 無任所公使 키프博士隨員 코노-르博士(外務省參事官)等三氏를 派遣하야 日本, 滿洲國과의 사이에 日滿獨三國間의 貿易調整, 日滿經濟提携等의 問題에 關하야 協議를 行하고 또渡滿後 滿洲國當局과의 사이에 協議를 遂하야 當時後 外務省松島通商局長이 滿獨通商協定締結에 關하야 協議中이던바 요즘 滿洲國政府의 意向이 完全히 一致되엇스므로 四月三十日 正午 外務省通商局長室에서 駐日 滿洲國大使 謝介石氏 經濟視察團 首席 키프博士間에 松島通商局長及 滿獨兩國關係者立會下에 滿獨通商協定의 正式調印을 終了하엿다 따라서 駐日 滿洲國大使館에서는 一日 正午 右協定調印에 關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滿獨通商關係는 滿洲國의 輸出五千二百萬圓에 對하야 獨逸로부터의 輸入一千二百萬圓 (모다昭和九年度)으로 滿洲國에 有利하 片貿易이 되어잇는데 反하야 日滿通商關係는 日本의對滿輸出一千九百萬圓에對하야 輸入一億九百萬圓으로日本에 不利한 片貿易關係가되[illegible]

稅制改革準備의 調查官全體會議

當分間每週一回開催

【東京電話電通】明年度以降에잇서 當然施行될 彪大한 豫算膨脹에 備하야 政府가 如何한 財源方針으로써 臨할는지는 各方面에서 異常한 關心을갓고 注目하고잇는데 內閣調查局에서는 過般來各省으로부터 蒐集한 資料에 基하야 大藏省과는 別個의立場에서 關係調查官이 稅制改革, 增稅, 公債政策에 關하야 調查研究를 進行하고잇는데 特別議會에 備하기爲하야 三十日午後一時부터 調查局의 調查官全體會議를 開催하고 關係官이 參與하야 專門委員 出席한後

一、增稅의 範圍種目
一、國稅와地方稅와의關係調查
其他 稅制改革의 根本方針에 對하야 自由討論의 形式으로써 여러가지로 意見을 交換하고 同四時散會하엿는데 今後當分間每週一回 稅制改革에關한 調查官의 全體會議를 開하고 具體案의 [illegible]

衆議院正副議長 黨籍離脫手續完了

【東京電話同盟】一日衆議院本會議에서 議長에 當選된民政黨의 富田幸次郎氏와副議長에 當選된 政友會의 岡田忠彥氏는 곳黨籍離脫의 手續을 取하엿다

二·二六事件의眞相을 陸相、議會서說明

一日閣議에서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二六事件에依한 人心의 不安을 一掃하려고 同事件의 內容을 特別議會에서 說明할터인데 그時期方法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研究한 結果 陸軍當局과도 協議中이든바 午前의 閣議에서 說明方法은 一日의 閣議에서 說明方法과 其他의 意見交換을 한結果 來六日 貴衆兩院本會議에서 公開된대로 寺內陸相으로부터 積極的으로 發言을求하야 說明하기로 方針을決定하고 貴族院에서는 同日午前의 本會議에서 廣田首相有田外相의 施政外交方針에 關한 演說終了後 또衆議院에서는 同日午後의 本會議에서 首相外相의 演說直後에 說明할터인데 說明의 範圍는 大體로 事件勃發의 動機, 經過의 眞相과 處置의 顚末이요 事件의 經過, 同事件의 [illegible] 內容은 비로소 統一的으로 公表되리라 하며 全國民의 代表인 議會를 通하야 一般國民에게 說明하려고 하는 [illegible] 委員會其他에서 事件에關한 質疑에 對해서는 許할수잇는 範圍內에서 應答할 方針이다

鮮滿拓殖會社에 東亞勸業合流

滿鐵重役會決定

【大連一日發同盟】朝鮮農民의滿洲移民을 積極的으로 助長하고 또 一元的으로 統制하려는 目的下에 朝鮮總督府에서 計畫된 鮮滿拓植會社設立案은 第六十九議會에 上程되어 近近 設立을 보게되엇는데 滿鐵에서도 從來 朝鮮人의 農業移民事業을 行하고잇던 奉天東亞勸業을 前記拓植會社에 合流케 하기爲하야 卅日 滿鐵本社에서 山崎、佐佐木兩理事 中西總務部長、市川會計部長等 關係當局者가出席하야 移讓에關한 最後的重役會를 開催한結果 委員會를組織하야七日頃까지에 政府의 認可를 어든다음 鮮滿拓殖會社에 投資의 形式으로써 合流시키기로 決定하엿다

까솔린價引上 商工省容認

【東京電話電通】商工省에서는압서 石油業者로부터 原油及運賃引上을 理由로 까솔린市價를引上해달라는 要望을바덧는데 商工省에서는 右要望에 基하야調查한 結果 右는 原料關係에依한 純經濟的事情에 基한것이라고 認定하고 一갤론에 五錢을 引上한 五十一錢賣를 容認하기로 決定하야 一日午後 當業者에게 示達하엿다

夕刊後市況 一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一七五九〇	(一〇高)
鐘新	一五一六〇	(一〇低)
日產	六八九〇	(一〇低)
東新	一三〇七〇	(不變)

◆橫濱 生系 後引◆

當限 七五五〇 先限 七二四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一六〇 先限 一二〇

製法 日·英·米·加·濠·愛蘭·專賣特許
有馬青山太龍王醫學博士創製
結核免疫元 아-오-
結核
AO의治療的應用 肺結核、眼科結核、肋腹膜炎、皮膚結核、外科結核、泌尿生殖器結核、喘息等
特히肺結核의初期及眼科的結核에卓効잇슴은 이多數醫學大家들의實驗報告로써確實하다
AO의豫防的應用 潛伏結核、淋巴腺腫、虛弱體質、結核疑症等
特히腺病質並結核의疑心잇는學生과兒童에對하야서는꼭接種을試驗하야서發病豫防、體質改善을圖謀하기를바란다
AO의診斷的應用 治療를兼한無害한診斷法
解說 呈上
發賣元 須美商店

銘製造卸 大工道具 卸値段表進呈
大阪市東區 武村製作所
電話東八二一四番 振替大阪七六四〇番

帽子卸問屋 阿部清商店
大阪市東區島町二丁目(高麗橋東三丁)
電話東二三三番 振替大阪二二四〇番

麻小兒帽子 パナマ帽子、一文字帽子、品揃
店舖移轉通知
大阪市道路擴張에依하야 今般左記와如히移轉하얏사오니 倍前의愛顧를切望하나이다
大阪市東區島町二丁目(高麗橋東三丁)
帽子卸問屋 阿部清商店

(高級絹綿)
婦人服 女兒服 割烹服 エプロン 製造卸
大阪市東區島町一丁目
(洋品店에 型錄進呈)
川澄八郎商店
電話東一三九〇八 振替大阪一九八五番

(商店에限하야見本相場表送呈)
勞働 セーラー 乘馬ズボン 洋服各種 其他小倉服一般
大阪市東區平野町二丁目二〇番地
若原重商店

(卸業者에限함)
現代的趣味에適合하고 實用的이며 良好한
ステツキ パイプ 卸商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丁目
合名會社 井村友三郞商店
電話本局一〇二一 振替大阪三一八九〇番

大阪着名問屋案內
春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京阪神朝鮮人問題座談會

朝鮮人運轉手는 採用忌避의惡傾向

新聞配達夫는大阪府內만六百餘名 最高收入이三十八圓程度

金敎中 민간공사(民間事業)에는 아연(亞鉛) 제약(製藥)등 비위생적이고 위험한곳에 만히 쓰이는데 대부분 임시직공으로 들어감으로 병이되여야 병마상여금도업고 공장을나올때도 퇴직금도업고 건강보험에도 들지못하여서 상해(傷害)를당하엿슬때에 매우곤란하며 대부분 공장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데에가서 만히로동합니다 그러고 임금은 칠、팔십전이보통입니다 「우께도리」로일을한다면 좀더만히벌수잇스나 바라기어렵습니다

鄭局長 다시말하면 정직공이 만히되지못하고 임시직공이 만흔 모양입니다 가두로동자와 공장로동자와의비례는 엇지됩니가

金敎中 자유로동자가만습니다

崔時豊 아마 공장로동자가 이할이라면 가두로동자가 팔할은됩니다

鄭局長 단신으로잇는이와 처자를다리고와잇는이를 비교한다면 어느편이만습니가

崔時豊 그전에는 단신으로 만히와잇섯스나 지금에 와서는 처자를 다려다 동거하는분이 점점만습니다 그러나 아즉으로보아서는 단신으로와잇는사람이만습니다

金大阪支局長 정직공이 적다는것은 기술이잇스면서도 조선사람인까닭에 못들어가는가 또는 속히벌기위하야 추지공장이나 비위생적인 공장에만히 들어가게되는지 이것을 우리로서 생각하여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운전수 신문배달하는이도 만타고하니 현직에게시는 곽상수씨와 김준옥씨가 말슴하시지요

郭尙洙 자신이 운전수인만큼 끈탄한문제가 잇다고봅니다 경도에는 운전수가사백명 조수가삼백명 합칠백명이나됩니다 저는 경도조선인운전자 친목회의 한사람으로서 간단히말슴하겟습니다 운전의 직업이 따임괴담나서 기술문제인까닭에 경도서는 아즉차별은 별로 업습니다 「택시」(自動車)는가로로 방황하면서 손님을 태이는데 수입금에 대하야 이할내지 이할오부가 운전수의 수입이됩니다 그전에는 자동차 일이대로서도 택시영업을 할수잇게 되여서 한사십명의 영업자가 잇섯스나 벌긔가개[illegible]로는 세대박게는 업습니다 우리조선사람은 신체가 건강하고 납부(納金)을잘함으로 고주들은 조와하나 교통위반벌에는 만히 걸립니다 제작년 실업시에 교통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경도에서는 취체가 매우 심하야 면허기간 오개년내에 삼십회이상벌금위반자는 면허를 취소당합니다 이것이 제일중대한문제임으로 우리친목회에서는 당국에와의적을 교섭중입니다 운전수는 교통기관의 로동자인만큼 녹마역、떼백이만히걸립니다

金大阪支局長 교통법규위반에만히 걸니거들은 운전수자신의 무리로인함이 아닌가요?

郭尙洙 납금을 만히 올니기위하야 손을 데우지못할곳에서 데우게됨으로 그전에만히 위반됩니다

金大阪支局長 승객이 차내에서 친 일본사람보고 조선사람이라고 태도가 달러지는 수는 업습니가?

郭尙洙 혹 조선사람의 일본의 표를보고 차를세우지안흘 사람도잇고 도라고서 태도가달녀지는 사람도잇습니다

金光洙 폐판은 작년사월부터 [illegible]가 개정된이후로 조선인운전수의 취직이 곤란하게되엿습니다 큰회사에서는 점점조선인운전수를 안쓰는 경향이보여니 앞으로는 매우 취직이곤난하리라고봅니다 이곳도조선인운전수는 교통위반벌에만히걸니는데 교통순사가 취체중가 「조선사람의시호가나이놈이」란 로 순사와 충돌이 만히됨으로 더욱 불리한점이 적지아니하다합니다 수입은 구십원는현수입의 이할이 보통이고 선수차는 이할이 보통이어고 고정급과 활급과 수입할을 주는데도 잇스나 평균하면 월고삼십오원에서 삼십원까지가 보통입니다

金敎中 [illegible] 신문배달을 해나오는 까닭에 다소의 지식은잇습니다 첫재 신문배달부라면 일본사람은 사회적 지위가업는 로동자보다 좀더는 경향이잇만합니다 매우 이중의 고통이 심합니다 조선사람의 배달부는 대판부내만 륙백명 이상이나됩니다 그런데는 그래서 하루에는 [illegible] 가 나버린이후로는 일본사람들이 진정으로 들어오는사람이 만흠으로 이곳에도 조선사람을 만히안쓰려는 경향입니다 아침두시간 저녁두시간 로동으로 보통이 삽십오원 내지사십오원되는데 「오늘고민」로동을하하면 월사십팔원이상의 수입은됩니다 제일회장때에끈 만한데 엇재면 잘못하면 해고 불랑으로 일본사람은 해고 당해지 취직이쉬지만 우리로서는 어려웁고 도한공부도중 단지기쉬운으로 [illegible]의성적으로떨어집니다 동양의 문화중심지라하며 통계상으로 신문도지만키로 유명하지만 실지에 보고십허서 보는사람은 얼마업고 아모리 "대조" "대매"니 하지만 배달부와 권하는사람의 강권과 안면으로 만히봅니다 제일 절박한것은 조선사람의 독자에 한해서는 선금을 밧고서 신문을너흐라 하니 조선사람인 우리로서참으로 곤란할때가적지안습니다

(사진은대판에잇는조선인시장)

出席者 (無順) 京都側=[illegible](耶蘇敎牧師) 鄭[illegible](京都[illegible]組合理事) 高[illegible](同上[illegible]保育園長) 洪命用(海陸物産商) 郭尙洙(自動車運轉手) 姜[illegible]一(고무職工) 大阪側=高[illegible]偉(耶蘇敎牧師) 文[illegible]洙(耶蘇敎牧師) 李元道(基督靑年會幹事) 金炳石(朝鮮佛敎布敎師) 林正業(製革工場主) 金濬洙(朝鮮布木商) 朱寬淳(朝鮮民報記者) 申[illegible](古物商) 鄭[illegible]局(古物商) 李[illegible](民衆時報社員) 李[illegible] 金[illegible](家庭婦人) 金敎中(阪神消費組合長) 神戶側=崔時豊(朝鮮物産商) 金光才(朝鮮人消費組合長) 李[illegible] 鄭[illegible](職工) 李民善(職工) 主催側=本社營業局長金[illegible]元、阪[illegible]長方[illegible]斗、本社大阪支局長金光洙、支局員朴永[illegible]、京都支局長金[illegible]、神戶支局長[illegible] 時日=三月十四日午後二時 場所=大阪川口 [illegible]

腸窒扶斯 豫防注射 成績極不良

豫定計畫보다七分一에不過 第二期는各機關動員 第一期施行

작년에 장질부사가 넘어도만히창궐하엿든데 갤리인 경성부에서는 금번에 장질부사의 류행을 막을ㅈ 오월로 금번 사월초순부터 사오월까지에 시내에서 삼십만명한정하고 예방주사를 계획을세우고 제일긔로는 사월동일부터 이십사일까지 남부와 서부、북부일부에 약오십여개소에서 주사를시행하엿든데 그에 정원은 실로만이천백구명이엇다 그런데 그시행성적으로보면 제일회주사를 한것이 겨우일천일백삼십사명이고 제이회주사까지한것은 겨우삼천삼백사십구명이다 거기에 예정수이외의 한부당국에서는 다소 당황한감을 가지고잇다 예방주사란는것은두번맛다한다해도 사람에 따라서 그효험의 발생정도가 달러서예방주사를 마젓다고해서 반듯이 병에 걸리지안으리라는 보증을 하기어려운터에 이처럼 주사성적이 조치못하여서는 방역사업의효과를 원만히 나타내기어려울것은 더말할것업다 그리고 제일회주사만맛고 제이회주사를 코거라 단체에서 주사마즌이들을 칠천팔백사십삼명을 합하야 만사천사백 구십사명밧게 못된다 이것으로보면 주사를 필한것을 예정인원의 사분의일도 못되는 소수이어서 장질부사격리의 계획은 예상보다넘어도 불성적이어서 맛지안은사람만도 어만여명이되는데 주사는 제일회주사를한후 니저도 십일이내에 제이회주사를해야 하는것을 다만버만하고 그래로 둔다면 주사를안마즌것이나 달음업시될것임으로 제일회주사만을 하엿든 사람에게는 공연히 주사약감만 버린셈이되고말엇다 그래서 오월중에시행할 제이긔의 북부와 동부의주사에는 각방면기관을 총동원식히어 제일긔이상의 성적을내어고저 준비중이다 가정에서도주의하야 될수잇는대로 주사를하도록하야 경성의 공중위생에유감업시하기를당국은바란다고잇다

잔듸우의樂園

瑞興新芳里에大火

百四十餘戶全燒

原因不明·方今延燒中

【瑞興支局電話】 일일 오후여섯시경에황해도 서흥군 률리면신방리(瑞興郡栗里面新芳里)신당동에서는 갑작이불이나서 때마츰 불어오는 억센바람에 순식간에 불길이뻐처나가서 엄마아난동안에동내 일백사십여호를 전소하고방금도 더욱뻐처나가는중인데 아직 발화장소와 원인등 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동내에는큰 미곡상(米穀商)도잇서서 손해가 일만오천원을 넘을모양이며 가축의 피해도 상당히만흘듯하다

太平通에交通事故

일일오후여섯시반경에 시내태평통(太平通)이정목 삼백오십팔번지압헤서 아현정(阿峴町)오십륙번지 리강록(李康祿)(二七)이가 운전하는 특경(特京)어백오십호오트바이를 내장교정(長橋町)사십오번지 성국(鮮星國)(六)이라는 우이어 치여서 허리를 닥치고 부면병원에 입원하엿는데 상처는대단 치안타고한다

合流土兵團 擊滅

興京縣境에서

【奉天一日發同盟】 중화(中谷)부대의곡구(谷口)○○대는환인(桓仁) 통화(通化) 흥경(興京) 각현경에 향하야 도주중의 토비단수주걱중 상서일오전오시반경에 흥경현마안가자(興京縣馬安家子)부근에서 해림(海林)구강호(九江好)등이 합류한 토비단 약백명과맛나 격전한결과 젼멸적타격을주고 괴주시켯는데 이전투에서 보병오장한명과 이등병한명이 중상하얏다。

第二高普創立 十五週年紀念

大先生動章表彰

시내청운정(淸雲町)에잇는 경성제이공립고등보통학교(京城第二公立高等普通學校)에서는 이일

三百餘名思想囚 監房內에서喧騷

昨日午後就寢時間을利用 咸興刑務所에서

【咸興支局電話】 삼십일일오후여덟시쯤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에서는 취침시간이되여 수인일동이 십분동안정좌(靜座)를하는시간에 돌연히 사상수한명이 매1테1노래와○○가를부르자 이를 에응하야 전형무소안에잇든 삼백여명 사상수가한목으로 노래를부르고 소동을함으로 형무소당국은크게놀라 돌연히비상소집을하고 진정에노력한결과 약삼십분이나 ○○이르러서야 간신히진정을 시켯는데 일일인 오월일일아침은 오전부터형무소 간부들이모혀 구수밀의를하고 잇는중이로사태의재발을 념려하야 당국자도 매우긴장중이라고한다

軌道車에跳入

自殺企圖

충남공주군 사곡면 신영리(忠南公州郡寺谷面新永里)에 원적을두고 일정한주소가 업시방황하는리대희(李大熙)(二三)는 일일오후세시 사십분경에 독섬에서 동대문으로 가는괴도차가 화양역(華陽驛)을떠나 전곳역(新串驛)에 향하는도중에 뛰여들엇스나 긔적적으로 생명에관계업슬뿐아니라 부상도되지 안히엿다하며 일정한 직업도업시 방황하는 신세를 비관한것으로 그날밤에 다시자살의 렴려가잇슴으로 지금동대문서에서 보호중이라고한다

變心한娼妓를 刺傷

自己는縊首自殺

【釜山電話通話】 일일오전네시반경에 부내록정유곽(綠町遊廓)에 [illegible] 귀는 며지가작잡한종로라서 목울매여 죽어버렷다한다 원인은 며자의변심

雇用女出奔

(入舟町)백삼십팔번지 오청(吳晴)씨의집에서 십팔세되는 리금순(李今順)(一七)은 하로밤오전 열시경되여 정동나간채로 도라오지안어 소관종로서에 수색원을제출 하엿다고한다

失踪한城大生 屍體로發見

一日山中에서

지난일일에 제주도(濟州島)에서 등산중에 행방불명이된 경성제대(京城)의학부 일년생 전천지춘(前川智春)(二二)은 그동안 수사하고잇든중 일일오후에시체가되여 발견되엿다한다

課稅範圍의擴大로 小細民層大打擊

「京城府戶別稅賦課等級改正」

금번부터 새로도세(道稅)로된 호별세(戶別稅)는납세자에대한 부과표준(賦課標準)을경정한것으로 일원오호부터 경성부회의가결되리는데 이번호별세라는것은 종래부세(府稅)이든것을 도세로넘기게되고 부에서는 그부과세를 종래보다는 자력이적은 상배원정도에까지 세납을 매이게되엇다 세무당국의말을들으면 종래와다대한 차이가잇다 종래에는 무능이력실력등의 확실률동의 자력표준(資力標準)은 오백원이상등으로하고 최저의 일배이상의 등으로되여 잇서 이번에는 동급은 일배이상의 사실상 소수였으나 이번에는 세금이적어 상배원으로되여 잇서 원)으로뭐엇서 우호도세로하여 부과에도 마히된것이 다 새로부과될 동급은 종래의 동급에비하면 중급이 일등이십 번에는 최등 (자력표준이십사만 원)으로되엿서 우호도세로하여 중세되는것은 아니라고하나 세금이 더만하지면 중가하게도 자연납세액이 증가될것이다 그 러서 새로부과될 호별세는우호로도 더밧게되나 아래로내려와서 소세민에게 밋는부담이인원수로 더들어나게 될터로 소세민층에게는 타격이 만흘것이다

"今世의불가살이"

써먹는三人組竊盜犯

一名은被捉·그外는모다逃走

시내훈정(薰町)백삼십칠번지 태생으로 일정한 주소업시 도라다니는 석금동(石今童)(二八)은 부산태생 리종하(李鍾夏)와 시내신당정(新堂町)태생김봉남(金鳳男)과공모하고 작년십일월이십오일 시내광희정 오정목칠십륙번지 "써1비쓰"라는정 현목(縣亭)자동차창고에 들어가부속품 시가일백오십원어치를 훔처간것을비롯하야경성전긔회사동대문변전소(東大門變電所) 창고에서두차례에 동선(銅線)백여원어치를 동십이월십일에는 신당정(新堂町)경성부 수도과 광희분실에서 (砲金製)품을재 지수 「코코」라는가게 금년이월십일에는 이백스물여덟개 한게 시가칠백여원어치를 훔처가지고는신당정 이백오십이번지 지지만(池地萬)이란 사람에게 팔어먹은것이라하며 전기 석금동은 소관본정서에서 엄중취조중이나 그외 세사람은 아즉잡지못하엿다

喜樂館아페"스리"

시내아현정(阿峴町)산(山)칠번지의사십칠호에사는 리대교(李大敎)(二四)(假名)라는소년은 일일오후한시쯤되여 시내본정일정목삼십팔번지 희락관(喜樂館)아페서 한강통(漢江通)십삼번지의 류실호에사는 교본"아야꼬"(橋本)(二七)(假名)에게서 삼십칠원이나든지갑을 훔처가지고 도망질하는것을 보고잇든 북미무진회사(北米無盡會社)사원 윤명국(尹炳敎)(二三)황용현(黃龍鉉)(二〇)외한사람이 추격체포하엿다고한다

待望의籠球리一그 十四團體出戰

本社後援、六日開幕

待望의 中等學校及 專門學校籠球리一그戰은 朝鮮籠球協會主催와本社後援으로 五月六日부터 七日間에亘하야 京城運動場 白氏[illegible]을 [illegible] 이에出場하기로되엿는데 A級에는 中東、[illegible]、[illegible] B級엔 中央、培材、一高로서 全部十一校이다 그리고 倶樂部에는 高麗、普專、延專等三팀이 參加하야 霸權을爭奪하리라 [illegible] 陣容으로 勝敗의豫測을不許하다

徐廷權君今朝入京

今二日午後三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illegible]

輔仁大學蹴球敗北

對慶應大學戰에

日本遠征中인 北平輔仁大學對慶應大學蹴球戰은 廿九日午後三時十五分부터 東大球場에서 輔仁先蹴으로 開始한바 結局六對四로 輔仁軍敗退하엿다

慶應6(3…2 / 3…2)4輔仁

朝鮮蹴協主催의 蹴球大會

五個團體參加

朝鮮蹴球協會와 朝鮮中央日報社體育部及 大阪朝日新聞京城通信局共同後援의 第二回全朝鮮蹴球大會는 五月七日부터 三日間 京城球場에서 擧行하리라는데 參加團體는 우리蹴球界의 [illegible]

中央佛專主催의 全朝鮮中等庭球

五月廿三、四兩日間

中央佛敎專門學校 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二回全朝鮮中等學校軟式庭球大會는 五月二十三日과 二十四日의兩日間府內 明倫町中央佛專코一트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參加는每校一團體(三組式)에限하며 오는 二十日까지 參加金二圓을 添付하야同校로申請하기를바란다(詳細追後發表)

中央佛專體育部陣容

中央佛敎專門學校 體育部에서는 今年度 各部幹事를 다음과가티 選定하엿다한다

▲監督朴成熙 ▲部長金炳旭 ▲庭球部全泰鎰 ▲蹴球部金一鳳 ▲野球部朴永源 ▲籠球部高凡龍 ▲氷上部李正秀

今日의運動

▲蹴球=東洋蹴球會後援會主催職業選手團戰은 午後三時부터 京城運動場 特設場에서(觀覽料金 자이드二圓 普通一圓 學生七十錢)

▲野球=春季實業리一그第一日京電對殖銀(午後一時)鐵道對遞信(午後四時半)、京城運動場◇中學野球리一그京商對 普成(午後二時)龍山球場

▲籠球=中等籠球 京城地方豫選 一高對龍中戰은 午後六時부터 京城府民코一트에서

▲럭비=春季리一그 業專對高工은 午後四時부터 龍山鐵道球場

漢城銀行 株式會社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 電話本局(2)二一六一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五番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 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 出張所 延安、平壤、平壤大和町支、東砂出張所

京城 大陸 登錄商標 登錄商標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2)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一二八一番 專務取締役 李圭元 總販賣部 京城鍾路(觀覽刑事前) 電話光化門長七六五 振替口座京城七三三三番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通) 電話本局(2)七五四番 振替口座京城三七五五番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 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漁貝 秋岡商會 漁具商部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2)四三九〇 振替京城一一壹五六 定價表進呈 極上等 四分目 三間金三圓也 統投網 五分目 二尋金八圓也 捕鳥網 四分目 二尋金十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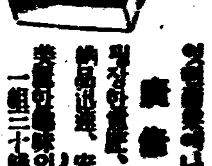
金銀白金 福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振替東京六八八番 受信略號 (トウケウイシフク) 電話下谷(38)一九五九〇番 二九九〇番 八二五〇番 八八〇〇番 出張所 平壤府旭町

晝夜生 募集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五月十二日第一部 實踐範記專修學院 (第四十七回) ◇學則要二錢切手校舍大擴張敷地六百餘坪及運動場千五百有餘坪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〇(電本五三六〇番)

校舍大擴張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黃金町六丁目廿三番地 (電本五三六〇) ◇新學期開始五月十二日(前期)◇學則要送料切手◇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中等學校入學又는內地上級入學準備)◇中學校高等普通學校程度實力養成科(三個年卒業)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太平町二丁目一番地 電本(2)三〇三〇番 女子警察官講義錄

開吉マッチ



富士工業社

南大門市場運動會 寄附者芳名

金一百圓 朝鮮運送株式會社京城支店 金三十圓 京城トラック株式會社 金十圓式 李淳集 栗業商組合 金學鵬 鄭殷勝二 金壽 金元甲 洪淳奭 龍田運送店 李注鉉 金五圓式 金昌培 林殷洙 金顯文 金昌潤 金三圓式 鄭鍾植 鄭勳謙 朴鐘錫 金榮甫會 南商會 中川泰治 金二圓式 栗業 李喜凡 金仁永商店 文宗均 金榮培 鄭千鶴會 崔某 合計金二百七十二圓 累計金一千七百九十五圓五十錢

우리二世들祝福日 어린이날明日로!

市內二十餘個少年運動團體總出動

徽文高普運動場에會集

래일로 제십오회를 마지하는 "어린이날"은 내외각지 삼백여소년단체가 총동원하야 축하식과 기렴행렬을 조선각지는물론 해외에잇는 어린이들도 빠짐없이 곡곡에서 거행케된다는 더욱성황을 예기하는바이어니와 경성"어린이날"은 다음과가튼순서로서 해내에보지못한 성황을 예상하게하는바이다

祝賀式

五月三日午前十一時에 徽文高等普通學校運動場에 市內少年運動關係團體二十餘團體總集合 約六十名

記念式順

一、開式 (喇叭、奏樂) 司會 鄭成昊
一、어린이날노래合唱 一同
一、記念辭 高長煥
一、少年少女宣言文朗讀 少年中
一、祝辭 安在鴻、金用茂、宋鎭禹
一、優良少年少女表彰
一、어린이날노래合唱
一、閉式 (어린이날萬歲三唱)

旗行列

任員指揮로 一隊五十名에 監督者一人式을두고 每組前列에 少年軍二名式을세워 約百五十組 七千五百餘名과 樂隊六組와 數十名의喇叭手로서行列을組織함

路順

一、中央方面動員團體 式場—齋洞町四街里—빠고다公園前—鍾路四街里—安國町—齋洞町四街里—各團體所在地
二、東大門方面動員團體 式場—齋洞町四街里—빠고다公園前—鍾路三丁目—敦化門—昌慶苑前—各團體所在地
三、東小門方面動員團體 式場—齋洞町四街里—빠고다公園前—鍾路三、四丁目—東大門—各團體所在地
四、西大門方面動員團體 式場—齋洞町四街里—빠고다公園前—鍾路四街里—光化門通—赤十字前—阿峴町—各團體所在地

其他事項

一、새벽다섯시부터 市內要處에서 어린이날을 宣傳하는喇叭과火砲를發함
二、새벽여섯시부터 市內집집마다 各團體를하야宣傳삐라를配付
三、各團體에서는 標語旗와宣傳塔을세우며 各家庭에서는祝字쓴燈籠을달음
四、라디오放送
五、飮料水 行列參加少年을爲하야 市內要處에서飮料水를準備供給함
一、無料健康診斷 이번 어린이날을 機會하야 一日부터五日까지 京城齒科醫師會의 協議로 市內에잇는 각病院(齒科와其他診療)에서는 十六歲以下의 어린이에게 無料健康診斷을하기로되엿슴
六、蓄音機放送 「어린이날노래」를 合唱하야 一般에

閩市內各少年團體에서는 一般어린이에게 一切廣告를 提供키로되엿슴 五月一日부터七日까지

當日委員

委員代表 高長煥
總務部 南基薰 鄭成昊 梁今童
財務部 李元珪 洪淳權 崔一
設備部 朴東日 姜敬龍 丁世鎭
金顯鳴
接待部 朴陽信 金相德 金榮一 桂炳鎬
旗行列部 金昌洙 韓英俊 金海順 鄭鎭成 崔亨均 咸順在 鄭吉福 尹英鎭 金完根 千弘基
樂隊部 康學根 方基南 各音樂部
警護及司令 趙喆鎬 金泰晳

祝賀會

五月二日午後八時「어린이날祝賀大會」
場所 中央基督敎靑年會講堂
主催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

五月二日午後八時「어린이慰安의밤」
場所 昌德學院內
童謠 두루미會、호수애會 京城童謠研究會
音樂 알파、하모니카、벤드
舞踊 龍光幼稚園 京城어린이放送會
童話 未定=南基薰 이상한편지=崔仁化
主催 正進少年軍本部

五月四日午後八時 어머니、누님의밤
場所 堅志町侍天敎堂內
講演「未定」其他 童謠 童舞
音樂
主催 京城어린이날準備會

在京卅餘團體 全市分擔宣傳

경성어린이날준비회에서는 재경성삼십여단체가 연합하야 만반준비를 완정하엿는데 선전방법은아래 구역으로나누어 당일에 오전부터 역승으로 하된 구역에 맛치다를 이루러라는바 구역에 정과 준비일동은아래와가티하다

一、宣傳區域配定
◇愛友少年會擔當 東亞町以北附近一帶
◇天道敎少年會擔當 樓上町中心附近一帶
◇朝鮮少年軍第一虎隊擔當 積善町中心南北一帶
◇朝鮮少年軍第七十七虎隊擔當 觀水町中心附近一帶
◇朝鮮少年軍第三十九虎隊擔當 水下町中心附近一帶
◇朝鮮少年軍第四十七虎隊 鍾路五丁目以南附近一帶
◇朝鮮少年軍第六十四虎隊 鍾路四丁目以南附近一帶
◇朝鮮少年軍第七十一虎隊擔當 東大門外昌信町以東一帶
◇正進少年軍擔當 東大門外昌信町以西一帶
◇朝鮮少年軍第七十六虎隊擔當 梨花町附近敦岩町附近一帶
◇朝鮮少年軍第六虎隊擔當 明倫町中心一帶及城北町
◇朝鮮少年軍第七十一虎隊擔當 崇仁町以東一帶
◇朝鮮少年軍第三十八虎隊擔當 奬忠町中心一帶
◇朝鮮少年軍第四十二虎隊 南大門外蓮花町中心一帶
◇東光少年軍擔當 新堂町 光熙町內外一帶
◇朝鮮少年軍第十六虎隊擔當 西大門外阿峴町附近一帶
◇青邱少年軍及弘濟少年軍三步隊擔當 麻浦町、東幕町一帶
◇朝鮮少年軍第六十七虎隊擔當 新設町附近一帶
◇以外未定地는自由行動及追後決定

自動車바롯고처주

▼청운정(淸雲町)막바지에서 창의문(彰義門)으로 올라가는 소위 자하문고개(紫霞門峴)는 비록 언덕 배기가될망정 제멋대로 부로둑과에서 손을대서 울퉁불퉁한돈가지을 얼마줌 메꾸라도 논까닭에 자동차가 무난히 올라갈수잇는터인데 한참 운전수들이 공연히 겁을집어먹고 못올라오겠다고해서 승객과 서비스가 금 일어나는일이 종종 바라노니 보안(保安)당국자는 한번 실지로 현장조사를 해보든지 창의문까지 자동차 경계표(境界標)를 세워서 양쪽으로는 일반운전수들로 하여금 「의례히 창의문까지 갈것이거니」하는 인식을 갓게해주면 감지덕지하겟소 (淸雲町 一住民)

麻浦電車改修하라

▼서대문(西大門)서 마포정(麻浦町)으로 다니는 전차를 은 모도가 낡은 선데서 여러해동안 움직임은 쩍지를 안아서 방금 뎅뎅! 하는 진이어서 수레(手車)한 동구의 동풍에 좋은 타래할지경이오 동구의 자녀들 내이는것도 얼굴에 서 갓흐이나 지금 위급을 좋다고 잇는판인데 엇쩌자고 하나로부터 열까지 낫가리는 지 도 만하지가 「몸-긴」차 좀 ... 내보내주어서 정차다운 전차 맛 좀보게 해주구료! (麻浦町 洞住民)

今夜는青年會館 四日은侍天教堂

兩處서室內祝賀會

오늘 저녁일「어린이날」을 맞게하기위하야 그에 비선전과축하로서 새로운모험이 만호리라는데 먼저「어린이날전야」인 이밤은 조선아동예술연구협회(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주최와 조선어린이날중앙준비회후원으로 밤여덟시부터 중앙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어린이날」축하대회를 개최하는바 소년소녀의 입장은 무료이나 어른에게한하야 장내정리료로 십전식바드리라하며 당일순서는 개략아래와갓다한다

▲童謠 어린이날노래 全員
제비마중、조각배、꽃방석 파랑이會 伴奏 聯合伴奏團
서울구경、봄소식 指揮 金泰晳
두루미會 伴奏 金璣鎭 劉甲順
봄의시내 律成童話研究會 伴奏 鄭基昊
종오리、개나리꽃 金剛會 伴奏 崔玄雲
▲童舞 荒城의月 京城어린이放送會 伴奏 聯合伴奏團
天使、메밀꽃、봄年、별님 指揮 金虎俊
京城童謠舞踊研究所 伴奏 聯合伴奏團
接舞、指揮 陳泰潤
새장수(島商) 明星會 伴奏 聯合伴奏團
▲童劇 毛麒允作 指揮 金龍燮
시골로가자 全一幕 朝鮮兒童藝術研究會
高麗調 指揮 毛麒允
밋을수잇는동무 全二幕 京城旺新童友會 指揮 金泰晳

◆童話 七七의밤 崔奎 남의제재기 宋完植

거대순서는 이상과가트며 특히 금번주최하며회의 성황을 위하여 인쇄물을 기증한곳은아래와가트다

一、입장권 三文社書店
一、프로그람 文海堂印刷所
一、案內券

오월사일밤은 어머니로서 자녀에대한 주의를 환기(喚起)하고 어린이양육(養育)에 대한문제를 고찰(考察)하고저「어머니、누님의 밤」을 오후여덟시부터 견지정 시천교당(侍天敎堂)에서 개최하리라는바 입장은 무료이나 어머니와 누님에 한하리라하며 상세한것은 추후발표하리라한다

本社見學

시내청운동보통학교생 이백명은 김병욱(金秉旭)선생인솔하 일일 오후두시반 본사를견학하엿다 (사진은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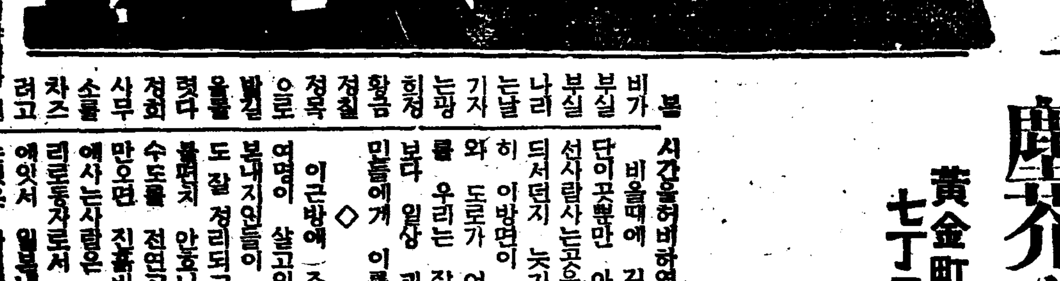
京城—果川—龍仁 直通道路

來秋에는完成豫定

三年間豫定事業으로三十萬圓工費

運賃交通에利便이莫大

【京南】경성을 목전에 두고도 물화를 마음대로 운수할길이업서 각방면으로 다대한 타격을 바더오든 시흥군과천읍(始興郡果川邑)일대와 경기도룡인(龍仁)읍중심으로 관통하는 이등도로가 금추내로써 완성하게되다 이는 경기도토목과의 지시를바 더하는 과천면과 룡인군의토목사업인데 여지껏 어두지방에서는 물화를운반하랴면 과천일대에서는 멀리 안양역(安養驛)으로나가게되엿고 룡인읍에서는 또한 경동철도(京東鐵道)로 수원을거처 다시불철로운반하야 비로소 경성에 이르게되는등 폐해가잇서 시간상으로나 경비상으로나 말할수업는 불편을 밧게됨으로이를 직접경성으로 주입식히기위한 한중요도로이다 총경비는삼십만원이라하며 작년사월부터혹석정(黑石町)을 기점으로 한강언덕을 갈도라서 동작리(銅雀里)에이르러 과천읍으로 가는길과 시흥군신동면량재리(新東面良才里)를거처 룡인으로가는길의 분기공사를 해오든중인데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여서 삼개년계속사업으로 랑안하엿든것이 금추내로 완성하게된다한다 이도로가 완성되는때에는 과천룡인방면의발전은 물론 경부연락도로를 보히겟스며 중요성을띄고잇서 시내도 동차회사에서는 또한 이곳에승합자동차운전허가원까지 제출하고잇다한다



塵芥속에埋沒된

黃金町七丁目과光熙町一帶

二千餘住民에共同水筒은한개

上厚下薄施設標本町

舊京城第十篇

봄비가 부실부실 나리는날 기자는 광희정 황금정칠정목으로 발길을옮렷다 정회사무소를 차즈려고 어둡지울룩 도라다니라니가 길에는물이가득잡기고 진흙이 뛰여어떼케 밟지옥을 떼어노키가 괴롭웁지 보통시보담 배어상의 시간을허비하여엿다

비올때에 길이괴약한것은 비단이곳뿐만 아니라 경성시내조선사람사는곳을 차저다니면 어듸서던지 늦기는바이지마는 특히 이방면이 더욱 심하다 비기와 도로가 어떠한게가 잇는가를 우리는 잘아는바이나 우리는 일상 괴로움을 밧는그정민들에게 이를설명식히기로하자

◇

이근방에 조선사람은 약육천여명이 살고잇는데 웬일인지일본내지인들이 사는곳은 하수도 도 잘 정리되고 도로도 그다지 울툴불툴하지 안코나우리가사는곳은하수도를 전연고치지 안하야 비만오면 진흙비다가됩니다 이곳에사는사람은 대부분이 날품팔이 행상 차즈리로등자로서 담세(擔稅)능력이 업서서 일본내지인보담 떠러지는것은 사실이겟지마는 부당국의 시설은 담세능력을 표준하야 차별을하는것도 아니겟지요? 국민생활의 복리증진은우리들과 가튼 세민층의 즉 일반대중생활의 향상에잇다하면 국가시설은몬저 세민계급을 목표로하여야할것이아니겟습니까 그런데 황금정칠정목과 광희정은 하수도정리된곳이 하나도업서서 비만나리면 길이험해저서 다니기가 곤난하니 부당국이 제일먼저고려해야할문제는 하수도 정리일것입니다 시민의 위생보건상으로든지 도시의 외관상으로든지무엇보담 긴급을 요하는사업으로 당국자가 우리보담 잘알면서 입대것 한층의시설을 안해주엇다는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한번이라도 부당국자가 이러한상은 예하하야 이방면주민들을 실지시찰하야 이방면주민들의고통을 살펴주엇스면 합니다

◇

그리고 이방면에는 질병마다오예이 상가려 차혀잇는 형편으로 부에서는 소제인부를두어 정거내의 때터오물건을 소제식혀 시민보건을 도모한다고하면서도 우리들은 계산정책으로 통속 하여도 월수일에 한번이커녕 일에한번도 소제부가 보이지 습니다 그러한상태로서 길은 더 떠러워지며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잇습니다

◇

일전에 이러할도 잇섯습니다 장질부사 예방주사를 마즈라고 집집마다 도라다니니 정민들이 하는말이 아모리 예방주사를맛 드라도 지금가리 터러운물건이 질주위를 싸고잇다면 무슨효과가 잇습니까 예방주사 예방주사 떠들지말고 월수일에 한번식이라도 소제부를보내여 오예물을 거두어가도록 하여달라 고 하엿습니다 사실 예방주사 이니 무엇이니 그런형식적 지엽적일은 고만두고 철저히시민의보건을 위한다면 좀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여 장질부사의 근원인 하수도를 하루속히 정리하여주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황금정칠정목에는 근이천여명의 주민이사는데 하수도는 단한곳밧게업습니다 이것이야 너무나 몰상식한 사실이아닙니까 밥을못먹어도 물만이라도 먹어야지요 물을얻어드려고 이동리저동리로 다니는 부인들을 보면 문화의혜택 대경성부의 은혜라는것이 어듸잇는가고 의심하고 십습니다

◇

선진제국에서는 세민조흔 특히시설을 중시하하야 그들의생활향상을 도모한다는데 우리경성은상호하바 (上厚下薄)의격이다 이것도 돈업는사람의 서름이라고? 부당국은 이곳대중들의 요구를먼저 들으라 그리고 곳 대중생활을 위한시설을 먼저하야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라!

(사진은 광희정일대)

百卅回大順序!

萬事OK.明日로待機

優勝種目만九個種目多數

迫頭한商工協合大運動會

전경성상공업자들의 오족 하루동안의 행락일인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주최의 제십회 전경성상공업자대운동회는 신록이무르녹은 삼일오전아홉시반부터 장충단공원에서 열릴터이라함은 루차보도하바어니와 대회당일의 만전을 도모하기위하야 모든준비는 순조로 진행중인데 일일에는 다음과가튼 경기순서를 발표하엿다

◇競技順序

第一部

一、二百米突競走	六回
二、障碍競走	二回
三、自轉車競走(三回)	六回
四、女子五十米突競走	二回
五、提燈競走	五回
六、四百米突競走	二回
七、女子스픈競走	二回
八、自轉車競走(六回)	四回
九、運搬競走	三回
十、女子百米突競走	三回
十一、盲啞競走	一回
十二、마라손出發	一回

第二部

十三、마라손歸着	
十四、女子二百米突競走	一回
十五、釣魚競走	七回
十六、自轉車競走(十週)	三回
十七、八百米突競走	三回
十八、女子障碍競走	二回
十九、障碍物競走	五回
二十、計算競走	五回
廿一、自轉車競走(三週)	五回
廿二、二百米突競走	五回
廿三、女子珠算競走	一回
廿四、難題競走	四回
廿五、自轉車(六週)	四回
廿六、提燈競走	五回
廿七、女子寶物競走	一回
廿八、帶戰競走	三回
廿九、小包包裝競走	三回
卅、四百米競走	四回
卅一、女子計算競走	一回
卅二、障碍競走	二回
卅三、스픈競走	四回
卅四、珠算競走	四回
卅五、八百米突競走	三回
卅六、女子包裝競走	一回
卅七、運命競走	四回
卅八、製箱競走	三回
卅九、女子針縫競走	三回
四十、自轉車競走(十週)	一回

四一、優勝競技 1、男子四百米 2、女子百米 3、男子小包競走 4、女子包裝競走 5、男子珠算競走 6、女子針縫競走 7、男子製箱競走 8、女子計算競走 9 男子計算競走
四二、引綱 全體 一回
四三、閉會

京仁間豪遊튼 大窃盜逮捕

【仁川】룡강군(龍岡郡) 오신면(吾新面) 한하리(寒下里) 김봉선(金鳳善)(三一)은 지난삼월부터경성에서 현금오십원을 『스리』하야 이를판매한대금으로 경성종로정(鍾路町)에서 기생을사랑하고 『메리야스』집에 취하야 이를판매한대금으로 경인간을 오르내리며 요리집 음식점에서 랑비끄테 지난삭일 인천으로와서 류정(柳町) 소화(昭和)식당에 잡혓는것을 인천서원이 체포하엿다는데 범죄건수만도 오십여건에 달하야 장물으로 현시실에는때 아닌 잡화상을 버리게되엿다한다

本社購讀消息

市內壽松町一三一 東相湖君과李某孩嬰의 結婚式을今二日午後三時부터 本社講堂에서擧行

斷然朝鮮雜誌王

朝光 五月號

堂堂四百餘頁의大册

発売中

燦然히빗나는朝光 即速注文하시오

本誌五月號가 發賣되자 暴風的으로 註文이殺到 합니다 號마다 賣盡되여 朝鮮雜誌界의 一大 쎈세이손을 이르키지만 이번號는 더욱 新綠號 라 五月의 여러분은 朝光부터 차즈시니이番號 도 速히 註文하지안으면 큰 狼狽니입다

美麗極致의表紙嶄新한內容

每號定價三十錢

地方郵稅本社負擔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振替京城五八七八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產業

魚族에도文明禍
汚水流失의影響莫大
水質汚毒實狀을調査

水産汚濁의 問題는 朝鮮에서는 水産業者가 未熟하야 格別 問題化되지안햇스나 實際的으로 最近 朝鮮內의 事業勃興에 伴하야 工場汚水, 鑛山, 製錬業의 鑛滓汚水, 魚油工場의 流失魚油의 汚水等이 漁業에 及하는 影響이 局部的으로 問題되어 就中 東海岸魚油工場의 流失魚油가 海藻漁業에 及하는 影響은 相當히 深刻한바 가잇서 總督府水産局에서도 從來 全然 閑却形勢에잇든 水質汚濁에 [illegible] 進出하기로 되어 近近 各道關係者에 對하야 全朝鮮의 水質汚濁에 關한 實狀調査를 指令하기로되엇다

劣洞鑛山製錬所新設

住友의 文坪製錬所新設計畫에 뒤니어 最近 劣洞鑛山에서도 製錬所의 新設計畫이 進行되고잇다 同社는 黃海道遂安郡에잇는바 資本金五十萬圓이며 日産處理三百二十噸의 [illegible] 新設할 計畫이다

利川의畜產
年產廿三萬餘圓
그前途가자못洋洋

【利川】 利川郡의 主要畜産物은 牛, 豚, 鷄卵, 及 山羊乳等으로 昭和十年度總産額이 二十三萬二千餘圓이라는데 其主要內譯을보면 牛皮一萬七千九百七十三圓과 牛肉이 十一萬七千四十七圓이요 牛脂, 牛骨等이 八百二十一圓이고 豚肉, 豚脂, 豚毛等이 三萬六千三百四十一圓이며 鷄肉이 一萬七千八百五十四圓이요 鷄卵이 四萬一千七百五十四圓이며 山羊乳 二百三十三圓等인데 利川의 畜産界는 前途洋洋하다고한다

昨年中의 菜蔬作付
段別及收穫

【總督府發表】 昭和十年의 菜蔬作付段別은 甘藷優良種 一萬二千二百五十四町二段 同在來種二千二百三十六町三段 馬鈴薯優良種 五萬二千八百二十三町五段 同在來種 五萬七千一百二十五町三段 蕪菁 一町六段 牛蒡(蕪)二千五百十四町一段 白菜 四萬八千五百二十四町六段 甘藍 七百二十二町二段 葱三千二百四十四町九段 茄子 一千二百八十四町五段 胡瓜 七千七百三十三町六段 南瓜 四千五百五十七町九段 西瓜 [illegible]

[illegible] 萬九千六百八十貫 白菜 九千九百九十六萬五千七十八貫 甘藍 一百八十五萬五千九十四貫 葱六百卅四萬八千卅貫 茄子 五百十三萬二千六百六十四貫 胡瓜 一千八百十九萬三千七百四十三貫 南瓜 一千一百五十一萬九千三百二貫 西瓜 七百七十萬一千五百四十六貫 甜瓜 三千三百十九萬八百十七貫 大蒜 一千一百四十五萬七千十六貫 蕃椒 一千一百十七萬一千四百九十五貫 芹 二百九十八萬三千二百三十七貫으로 이것을 前年에比하면 作付段別에잇서는 甘藷優良種 一割五分九厘 馬鈴薯優良種 二割三分一厘 同在來種 三分七厘 白菜 八分 葱五分六厘 茄子 三分四厘 南瓜 一割三分 大蒜 六分六厘 蕃椒 七分八厘 芹 六分一厘의 增加이며 甘藷在來種 九分八厘 蕪菁 二分七厘 胡瓜 一分二厘 甘藍 二割六分 甜瓜 一分 蕪瓜 五分 西瓜 七分九厘의 減少이며 收穫高에 잇서는 甘藷優良種 四割六分 同在來種 三割一分八厘 馬鈴薯優良種 三割七分八厘 芋 一分九厘 甘藍 二割一分六厘 胡瓜 五分八厘 茄子 五分三厘 西瓜 一割一分 一厘 大蒜 一割七分七厘 蕃椒 一割一分 八厘의 增加이며 馬鈴薯在來種 六分七厘 蕪菁 四割四分五厘 白菜 七分九厘 甜瓜 二分九厘 芹 一割一分二厘의 減少이다

大日本油脂
魚油共販參加
大體로認可할方針

花王石鹼系의 大日本油脂會社(資本金六百萬圓)는 目下 朝鮮의 魚油共販統制에 參加하기爲하야 申請中이든바 大體 殖産局에서는 認可할 意向이어서 業態 其他의 諸事情을 調査中이다

肥料叺生產
一千三百餘萬枚
四月二十日現在

四月二十日現在의 肥料用叺 全朝鮮生産高는 千三百四十八萬七千餘枚로 豫定의 千百九十萬枚에 比하면 百五十八萬七千餘枚의 生産過剩을 示하얏다 各道別內譯은 如左하다

(單位千枚)

京畿	三,七二一	忠北	八八一
忠南	一,五二五	全北	二,一〇八
全南	九〇二	慶北	一,七六九
慶南	一,七六九	江原	三三
咸南	一,四二五	合計	一三,四七八

素質勁健蘭谷馬
平垣한長堤에大小群馬가爭嘶
軍馬競馬로聲價頗高

누구나 李王職蘭谷牧場이라면 朝鮮內에서는 물론이고 멀거니와 日本內地까지에도 그名聲을 휘날리고잇는바이다 그런데 本場은 大正五年에 朝鮮總督府에서 勸業模範場으로 設立하고 牧馬事業을 經營하든바 昭和四年三月에 廢止하는同時 李王職에서 同場及馬匹全部를 引受하야 爾來經營하고잇는데 本場牧馬의方針은 實用的 小格馬와 持久力이 富한 中格乘馬의 產出試驗을 企圖하고 素質勁健하며 畜養容易한 蒙古種牝馬에다 能力優秀한 洋種牡馬를 交配하야서 理想的 朝鮮馬의 產出을 實驗하얏든바 只今에 當하야 그實績은 着着나타나 同場產馬의 特殊性은 他地産馬에 比할바가 못된다 軍馬用으로 或은 競馬用으로 斷然 優勢를 가지고잇다 그리하야 龍山軍司令部나 騎兵聯隊에서도 年數回에 觀察을하고가며 其他各地 實業學校 觀察團도 不絶히 온다 엇잿든 本場의 產出馬는 그 品質이 優秀함에 따라 名聲이 振揚하고 또는 生産量이 多數함에 依하야 이地方의 特産이 아니될수 업슬것이다 그럼으로해서 이에紹介하는바이다 同場에 現在 畜養하고 잇는 馬匹의 種類及 頭數를 記하면 下와如하다

一種牝馬	四
競走系蒙種牝馬	五三
아랍系四歲以上牡牝馬	五五
競走系幼駒	五五
洋雜種蒙種牝馬	一一
洋雜種蒙種幼駒	一一
老駱馬	六
使用馬	二六

以上馬中에서 三歲以下로는 軍用馬로 賣出하고 三歲以上은 競馬用으로 賣出되는데 一年中賣出頭數는 二十四匹이오 代金은四萬圓이라한다 其中 競馬로서 賣買하는 價格은 上等一頭에 四千圓, 普通으로 二千圓 어리하며 同場蕃殖用牡馬中에는 日本內地에서 一頭에 萬圓까지 주고 사온것이 잇다 하니 이얼마나 놀나운 갑이랴 不遠한將來에 同場產馬도 이眞價를 차지할것을 밋는바이다 「平垣한長堤에 草色이 方濃하니 大小群馬가 爭嘶하는양 몹만도하다」(寫眞은 그光景)

蘭谷特產
淮陽支局 一記者

廢物桑皮를利用
製紙試驗에好成果
盈德郡에서獎勵할方針

【盈德】 慶北盈德郡에서는 昨年 春期에 桑皮를 廢物로取扱하야 相當히 만흔것을 廢物로取扱하든바 去三月下旬頃에 本郡製紙係 産業技手 許且福氏指導下에 製紙試驗을한結果 成績이良好하고 그製品도 諸原料使用分과 差異가업시 조흠으로 今年부터本格的으로 一般에게 獎勵할方針인바 이로는 農業家와 製紙家에 一大福音인同時에 年產額十數萬圓에 達하는 本郡紙物產出에도 한異彩를 加하리라고한다

尙州郡牛集散
年近二萬五千頭

【尙州】 慶北尙州郡의 生牛賣買狀況은 年年히 漸進的步調를 取하야 好成績을 示하고잇는데 郡內에서 主要賣買市場은 八個所 中 尙州, 咸昌, 洛東, 化寧, 牟東, 洛東, 銀尺等 市場으로서 交通의 便利에 따라 生牛의 集散이 旺盛하야 昨年度以上八個市場의 生牛賣買狀況은 延開市日數 四百九十八日에 出場頭數가 二萬四千四百二十四頭 그中 賣買高는 一萬三千三百三十七頭에 總賣買額은 八十一萬七千八百三十七圓이라는 巨額에 達한다하며 그價格을보면 最高一頭에 二百十圓이요 最低五圓인바 平均價格은 六十一圓이라하며 아프로 더욱 增殖을 보리라고한다

沈村共購組解散

【沈村】 沈村共同購入共助組合에서는 今月二十日 本組合定期總會를 本面事務所會議室에서 開催하고 組合의 存廢與否를 討議한結果 解散하기로可決하얏다한다

產◇業◇短◇信

▲鴻山 鴻山金融組合에서는 四月二十日 面事務所 會議室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馬山 當地 農工會金融株式會社에서는 四月二十八日 府內中央夜學校講堂에서 定期總會를 [illegible]

▲奉天 奉天朝鮮人金融組合에서는 四月二十五日午後一時 加茂町公會堂에서 定期總會를 開[illegible]

▲河東 河東産業組合에서는 二十三日午後一時부터 河東邑松林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河東 河東金融組合에서는 四月廿五日午後一時부터 定期 事務室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南原 南原[illegible]組合에서는 四月廿五日午後一時부터 同組合 [illegible]

▲龍岩 [illegible]組合에서는 四月廿五日午後一時부터 同組合 [illegible]

▲金海 [illegible] 四月二十六日午後一時부터 同組合事務所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長湍 長湍[illegible]組合에서는 四月十九日 當地 公會堂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長湍 [illegible] 四月十五日 [illegible]

▲長湍 長湍[illegible]組合에서 [illegible] 開催하엿섯다

▲新京 [illegible] 四月二十五日午後二時 [illegible]

▲大浦 [illegible] 四月二十四日 [illegible]

▲德川 德川[illegible]組合에서는 四月二十八日午後一時부터 [illegible] 開催하엿섯다

▲錦山 錦山[illegible]組合에서는 四月二十五日午後二時부터 [illegible]

▲江華 江華[illegible]組合에서는 四月二十七日 [illegible] 第一回[illegible]

尙州의生絲
年產四千五百瓩
全部郡內機業者消費

【尙州】 慶北尙州郡의 生絲年產高는 四千五百五十四瓩이라는데 其價額은 四萬八千六百八十一圓에 達한다는바 此生絲는 全部 郡內機業者가 消費한다고한다

長湍養牛品評會

【長湍】 京畿道長湍東場金融組合主催인 第四回養牛殖産品評會는 豫定과如히 去十九日 當地公普校大講堂에서 盛大히 開催하엿다

日用商品市況

五月一日 京城府內 [illegible] 穀類는 다음과갓다

▲粟 强保 [illegible]

▲小麥 保合 [illegible] 京城市內에서는 [illegible] 하고잇다

▲大麥 不變 [illegible]

▲大豆 保合 [illegible]

▲小豆 保合 [illegible]

▲胡麻 保合 [illegible]

昨年各種菜蔬
作付段別及收量

▲作付段別(町)

	今年	比前年增減率
甘藷 優良種	[illegible]	[illegible]
在來種	[illegible]	[illegible]
馬鈴薯 優良種	[illegible]	[illegible]
在來種	[illegible]	[illegible]
蕪菁	[illegible]	[illegible]
콘냐꾸	[illegible]	[illegible]
蘿蔔	[illegible]	[illegible]
白菜	[illegible]	[illegible]
甘藍	[illegible]	[illegible]
葱	[illegible]	[illegible]
茄子	[illegible]	[illegible]
胡瓜	[illegible]	[illegible]
南瓜	[illegible]	[illegible]
甜瓜	[illegible]	[illegible]
西瓜	[illegible]	[illegible]
大蒜	[illegible]	[illegible]
蕃椒	[illegible]	[illegible]
芹	[illegible]	[illegible]

▲收穫高 / ▲價額

(Columns: 甘藷 優良種, 在來種, 馬鈴薯, 콘냐꾸, 蘿蔔, 白菜, 甘藍, 葱, 茄子, 胡瓜, 南瓜, 甜瓜, 西瓜, 大蒜, 蕃椒, 芹 — figures [illegible])

四月中米及粟輸移出入高

▲米輸移出高(玄米換算單位石)

	今年	前年	今年	前年	今年	前年計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單位石)

	今年	前年	今年	前年	今年	前年計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單位石)

	今年	前年	今年	前年	今年	前年計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 住所 氏名
一二八三二一	金銀鑛	江原將彥郡[illegible]面	三月三十日	順天郡順天邑 金[illegible]
一二八三三二	同	黃海遂安郡道所面	同	遂安郡道所面 李[illegible]
一二八三三三	砂金	忠北淸州郡四州面	同	代表者 谷山郡谷山面 李成用 / 同 朴光[illegible]
一二八三三四	同	同四州面、南二面	同	淸州郡四州面 [illegible]
一二八三三五	金銀鑛	江原洪川郡瑞石面[illegible]	同三十一日	京城府[illegible] 代表者 郭[illegible] / 同 朴[illegible] / 同 金英[illegible] / 同 金[illegible]
一二八三三六	砂金	京畿驪州郡康川面	同	驪州郡康川面 李光[illegible]
一二八三三七	螢石	咸南新興郡永高面	同	東京市澁谷區[illegible] 古我谷名會社
一二八三三八	金銀鑛	忠北淸州郡江內面、江西面	同	京城府元町 三橋[illegible]
一二八三三九	金銀鑛	慶南昌寧郡城山面 慶北淸道郡[illegible]	四月一日	代表者 昌寧郡昌寧面 林[illegible] / 開城府[illegible] 金[illegible] 吳[illegible]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 住所 氏名
八一六四	[illegible]	慶南陜川郡冶爐面	三月二十八日	東京市麴町區丸ノ內 日本鑛業株式會社
九一五八	[illegible]	江原[illegible]北面	同	同
九〇五九	[illegible]	咸南安邊郡新高面	同	同
一〇四四八	[illegible]	黃海[illegible]北面、馬山面	同	同
一〇九五一	[illegible]	慶南昌原郡昌南下面	同	同
一一四四五	[illegible]	同北面	同	同
一一四四六	[illegible]	慶南昌原郡昌南下面 南上面	同	同
一一四四七	[illegible]	黃海[illegible]	同	同
一一四四八	[illegible]	同西面、[illegible]	同	同
一二〇〇七	[illegible]	同西面	同	同
一二〇〇八	[illegible]	同西面	同	同
一二三四五	[illegible]	同金川郡月城面	同	同
八三四〇二	[illegible]	咸南[illegible]	同	代表者 京城府南山町 [illegible] / 同 [illegible]

特別議會提出될 經濟關係法案 【五】

商工中央金庫法案

商工組合中央金庫案은 廣田內閣에 잇어서는 商工省의 新設案으로서 提出될 準備가 進行되고 잇든것이다 그러나 廣田內閣이 崩壞하고 나서는 商工省案의 半額五百萬圓案으로 內閣改造의 二·二六事件으로 廣田內閣이 成立되자 一千萬圓의 原案으로 復活되엇다 이번 特別議會는 前內閣의 政策이라고는하나 前內閣의 政府의 金融政策의 影響을 밧어 [illegible]

商工組合中央金庫는 여긔에 廣田內閣의 片鱗을 볼수도잇다 그러나 中小商工業者의 窮迫은 農村窮乏이 소리에 놀리어 世人의 印象도 薄弱하얏섯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小商工業者의 立場은 大資本의 壓迫과 近年 刮目할만한 產業組合運動의 進出을 示하게되든 商業組合運動의 새에끼워 窮迫은 날로 더하야 가고잇섯다

中小商工業者가 漸次 社會問題化하게되어 政府가 取한對策은 主로 組合運動이엇섯다 商業組合, 工業組合 또는 輸出組合을 設立하고 이에依하야 그更生을 圖하라하얏다 그러나中小商工業者에 對한 金融機關은 그窮乏에 拍車를 加하게되엇다 그는 政府의 金融政策의 影響에도依한[illegible]

다 이렇케말하면 이때까지의政府는 方針으로 銀行의 合倂을 極力奬勵하야 地方의 中小銀行을 整理하얏다 그結果는 信用取引을 바랄수잇는 中小銀行에代身하야 確實한 擔保와 保證人이 必要한 大銀行을 相對로 하게되어 中小商工業者는 金融機關의 喪失에 直面하게되엇다 以上의 情勢가 마츰내 商工金庫案을 낫케하는 素地를 만들엇다 勿論 日本에잇서 中小商工業者의 地位는 特殊한것으로 例하면 日本貿易品에 對하야보아도 그大部分은 中小工業者의 손으로 된것이어서 이見地에서此種組合의 健全한 發展을 助成키爲하야 이에 適合한 特殊金融機關을 設置할 必要가 잇는것이다

그러면 이 情勢에잇서 商工金庫 創設의理由가잇다고 商工當局은 說明한다 이도 確實한理由의 하나는 되나 그러나 實質은 어듸까지나 中小商工業者의 金融難에잇음은 다툴수업는事實이다

×

이러한 情勢에잇서 商工金庫設立의 必要를 부르지게된것은 昭和六年頃부터로 工業組合協會로부터 먼저 그第一聲을 올리엇다 商工省도 이에 動하게되어 昭和八年, 九年度豫算에는 商工金庫案을 너헛스나 時期尙早라는理由로 大藏省查定에서 削除되엇다 이것이 表面問題로 마츰내 政治問題에까지 發展한것은 昨年第六十七議會부터이다 當時 米穀自治管理法案을 圍繞코 衆議院에서는 都市와 農村兩議員이 對立하야 同法案 及 이에 關聯한 產業組合運動에對한 院外의 示威運動은 더욱 이對立에 拍車를 加하야 米穀自治管理法案을 通過식히기爲하야서는 政府로서 中小商工業者에對한 何等具體案을 示치안흐면 안될

情勢에 이르럿섯다 이情勢에 눌리어 드듸어 町田商相은 아직 高橋藏相에게는 무것도 말하지안햇스나 억일시 來年度 通常議會까지에는 中小商工業者金融의 具體案을 作成할생각이다 이는 自己의政治的責任을 지고 豫約한다 라고 議會에서 言明하얏다 이言明에 基하야 商工省에서는 곳 具體案을 作成하얏다 即 出資總額一千萬圓 이는政府와 民間이各五百萬圓을 내고 事業範圍도 大體產業組合中央金庫에 模倣하야 貸付 預金等 信用事務一切를 取扱한다는것이다 그런데 高橋藏相이 簡單히 引受하지안흠은 勿論이라 商業組合이라든가 工業組合은 아직 幼稚하야 스서로 金融機關을 設置할 程度가 아니되고 十數年後에 實現될것이다 產業組合中央金庫도 組合이 되지 十數年後에 實現된것이다 게다가 無擔保金融等 財政上의 危險이잇다하고 그와가튼 社會政策的인 時에 政府는 그와가튼 社會事業을 할수는 업다 고하얏다 大藏省當局의 反對理由는 그밧게도 一, 金融機關은 普通銀行의 統一이

素亂된다 一, 興銀그他普通銀行等現存機關으로는반드시안된다고할수업다 라고하나 그內幕에는 大藏省에서 一言도업시 町田商相의 議會에서 言明한바에 感情이잇섯다 그러나 이러케되면 町田商相의 面目問題 延하야서는 內閣에 再微하지못할것이다 이를 念慮한 岡田首相은 吉田調查局長官을 내세워 斡旋케하는등 山崎農相이 側面으로부터 高橋藏相說得에 奔走하는등 한騷動이일럿다 結局 藏相으로부터 이에依하야 反產運動도 幾分 緩和되는 [illegible] 이엇다 結局은 高橋·町田兩相의 直接談判으로 藏相이 굽어 「一旦 原則的으로 承認하자 그러나 一千萬圓은 넘우만타」 라고하야 結局

一, 出資總額은 五百萬圓으로하고 一, 中金의 業務는, 興銀이 이를 代行하기로 妥協하게되어 去解散議會에 提出하얏섯다 그런데 廣田內閣이 成立되자, 社會情勢의 壓力과 高橋財政의 修正을 標榜하는 馬場藏

相의 就任에 依하야 原案대로 一千萬圓으로 復活되엇다

法案의骨子

法案의 內容은 다음과갓다

一、組織=商業, 工業, 輸出各組合 並 그聯合會로하는 有限責任의 法人組織으로 한다

二、出資者=(가) 政府=五百萬圓 此中 初年度(十一年度)二百萬圓 殘餘三百萬圓을 다시三個年間에 出資한다 (나) 商業, 工業, 輸出各組合並 그聯合會=五百萬圓 此中 初年度 百萬圓 殘餘 四百萬圓으로 다시 十個年間에 出資한다

三、政府의 出資에 對하야서는 設立後 十五個年間 配當을 免除한다

四、債券의發行=拂込資本金의十倍를 限하야 商工債券의 發行을 認하다 即 이에依하야貸付其他의 事業資金을 엇게된다

五、事業=貸付, 手形의割引, 預金의受入, 有價證券의 保護及 委託賣買, 爲替業務等이다 此中貸付가 主한은 勿論이나 그際는 모다 無擔保의 信用貸付에依한다

各組合에의 貸付金은 當該組合의 發達助成에 消費되는일도잇슬지나 大部分은 各組合員에의 轉貸에 充當할이 實際이다 이에 依하야 高利債에 呻吟하는 中小商工業者는 救濟될것이다

六、役員=理事長一名, 理事三名以上, 監事二名以上을 置하고 主務大臣이 이를 任命한다 理事長은 興銀總裁가 이에當하고 그他의 役員도 政府, 興銀關係組合으로부터 選出하기로되엇다

七、監督=商工, 大藏兩省으로 한다 此外 中金의業務는 當分 興業銀行에 代行식히고 興銀支店出張所로서 中金의 支店出張所로한다

이興銀이 代行함에 對하야서는 中小商工業이 希望하는것과가튼 組合精神에 即한 金融을그리 期待할수업다는 論도잇스나 압서의 五百萬圓案의 때와는 多少달라 全部 興銀에 맛기는것이 아니고 中金을 爲하야 新人도 너허將來는 各支店出張所等 責任者도 興銀과 分離하야 側面의 援助으로하라는것이다

螢石

問

本人이 螢石鑛을經營하야 업는데 螢石一噸에 現價格이 어마나되며 또는螢石所用處가 어듸이온지 下敎하여 주시옵소서 (忠北延豐 李甲村)

答

螢石은 主로 製鐵所製材로 使用되고 其外 洋銀製鍊, 弗化物製造等에 消費됩니다 價格은 品位如何에 달렷습니다. 京城府內 中央試驗所에 依賴하야서 品位證明을 맛허서 買賣을하시오 螢石一噸當 大阪市勢

螢石一噸當	
九五%	三三圓〇〇錢
九〇%	二六、〇〇
八五%	二四、〇〇
八〇%	二一、五〇
七五%	一八、五〇
七〇%	一七、五〇
螢石末	每百斤 四圓五〇錢

重複實費말고 一回一回으로 簡單明確하게

黃昏
韓雪野 作 / 安夕影 畵
【75】

업 투(二)

「그때 마츰, 그지방에 치수공사(治水工事)가 잇서서 거게나 와 잇섯던 사람들이…」

경재는 무슨 풍속사진이나보듯이 이전기한 농촌 풍경을스스로 머리에 그려보며 담배한대를 부처물고 다시말을 잇는다——

「그런데 초엔 가보니까, 부역이라 개당(開當)이라 뭐라해서, 동안사이도 업는데, 밤은 또밤대로, 가마니 짜기와 색기꼬기에 해이 밝도록 어르이고 모다들 바쁘게 쩍쩍매구 돌아가드래요」

「그래도 려순이는 암말도 업다, 여태 묵직가리 무거운 생각에 눌리어잇섯든것이다.

변해지는 고향과 함께, 어린동생과 칠친하고 귀엽든 모습조차, 가난과 거츤바람에 고곡과가라 멀리가는것 갓해서, 그는 숨기어 적막을 느끼엇다.

「피서 가지못하는 대신에, 려순씨, 고향으로 가보십시요. 요담에 한번 가보십시다. 농촌이 외려 도회보다 낫겟서요. 순박한 농민들 속에서 그들과 가티 호흡하는것이…」

그래도 려순이는 여전히 잠자코 잇다.

「려순씨!」

「……」

「서울 가실 생각이 업습니까? 호미 메고 짱이 파고…」

려순은 그만 부시에 눈물이고여서 저편으로 스르를 고개를 돌여버렸다.

「그때 마츰, 그지방에 치수공사(治水工事)가 잇서서 거게나 [illegible] 흑여 어떠케 하고 또 나가밧 대요. 하니까, 날마다 수백 명일꾼들이 몰여드는데, 실지로쓰는사람은 매일팔구십명에 불과하드래요.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시험을 보거나, 딴규정을세워가지고 사람을 쓰는게 아니라, 아츰에 십장이 나와서, 그날 부칠 인부수(數)만치 부삽을 내여뿌리는데, 먼저 그것을 잡은 사람이 일을 하게되고, 그담 사람은 그저 돌아가게 되드래요. 해서 아츰이면그부삽을 줍노라구, 한무로 덤비여서 코피가 터진다, 나둥군다, 무릅을 다친다……해서, 아주 야단법석이드래요. 그래서어떤사람은 자기집 부삽을 몰래가지고 나와서 시침을 따고힘하다가 그만 들켜나서 등용힐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부자현재 여럿이 몰여나와서 부삽을 잡아가지고는 그중의한사람이 일을 하기도 하드래요」

경재가 그러케 말하는 사이에, 려순은 어느새 악가의 흥미와 호기심이 사라지고, 서글흔 마음이 스르를 가슴에 숨여들엇다.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면서 그날 그날을 애꾸자 지나가는 농민, 기운이를 문득 생각하엿든것이다. 하만콤 사람에 그들도 아름 사람이 그누구이며 볼티 멈은 세상이나 그만콤 험히

「그는 젊하가 잇는게 제일상싶어서, 남의 호의를 비리가지고, 또 정해이 잇는사람들에게서 이것 저것 물어 가지고, 시험을 봐다는데, 미처, 그런것까지는 생각지 못햇다구요」

「그래서요?」

「그만하면 그애기는 다 끗난것이언만, 그래도 무슨 뒤스말이 또 잇슬것만 가려서 려순은 재처 물엇다.

「그래서 떠러지구 말앗지요」하고 경재는 싱글벙글 웃는다

「또 하나 듯구 싶읍니까」 하고 다시 말을 잇는다. 씩

「그래서요?」 하고 그는 이야기를 재촉하듯이 경재를 보며 살을 살을 웃고잇다.

「그는 고향이에요」 고향 가보지 못한 지도 오래이고 해서, 「그러나 경재는 그런한 꿈은 설할 곳이 업서서……」

「려순씨도 인제 고향 가보지 면 아주 생판일걸 가뭇업지다 그사람들도 첨 서울가서는 집으로 가는 길을 다 일흐리니까 어떠케 뭇지 않을 어딘지 아주 생판일거야」

「려순씨도 인제 [illegible] 어떠케 뭇시 번해졌는지 어이가 어듸지 알수 업드래요. 수만 바르 이되고 보스럼이 다 이러케 조 여지고, 방죽이 첫다는 [illegible] 지고, 구길이 업서지고 새 로가 생기고, 다리두 소가 흔 처로 옮겨가고, 주재소가 새로 생기고, 사립학교가 공립보통학교가 되고……그리구 자기동리는 엉망하구 남갓것드라나요. 그러케 놀랍게 보이든집들이 납작해 잣섯고, 어떠진은 헐리고, 그대신 유리문에 흡당차흔 집도 생기고, 검은 판자로 지은, 눈에 서름진들도 생기고, 그리고 맘몽, 머리까고 경홋을 입어보서알사람도 엇땃 알